# 소다회, 동양 · 미국 · 중국산 3파전

## 종합상사 중국산 수입 추진… 운반비 저렴해 미국산보다 수익성 높아

중국산 소다회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산 소다회는 90년 최초로 수입되기 시작해 지난해 4400톤이 수입되었는데, 올해는 총 2만톤 가량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수입량 증가와 더불어 국내종합상사들의 중국산 소다회 신규 수입 움직임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회는 달재상사 · 국제상사 · 효성물산이, 중회는 쌍용이 수입해 왔으나, 지난 9월 삼성물산이 중회 1000톤 수입을 시작으로 11월에는 경회를 수입할 예정이다.
선경과 럭키금성상사도 중국산 소다회 수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종합상사들의 중국산 소다회 수입 참여붐은 제품가격 자체가 싼 것은 물론 국내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산에 비해 운반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 국교가 수립되고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을 가속화시킴에 따라 품질개선 및 포장상태가 개선되고 있으며, 공급도 일정수준 안정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수입선이 중국에 몰리면서 수입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 중국산 소다회의 가격은 91년 톤당 164달러, 92년 1/4분기 `158달러, 2/4분기 157달러로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하락했으나 하반기 들어서면서 국내상사들의 경쟁적인 참여 움직임으로 가격이 3/4분기 160달러로 오르는 등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며, 연말에 또 한차례의 가격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동양화학과 미국 ANSAC에 의해 공급선이 이원화되어 있는 국내 소다회시장에서 중국산 수입품의 시장점유율 확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10% 내외로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경기불황과 재고누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는 병유리 제조업체들의 제조원가절감 노력에 편승하여 중국산 소다회가 선호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한편, 92년 국내 소다회시장 규모는 동양화학 생산 26만톤, 미국산 수입 23만톤, 중국산 수입 2만톤 등으로 총 53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2/12/1>